

한교연 임원회...예배통제 불공평 지적

제10회 정기총회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1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대진 목사)은 지난 10월 6일(화)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9-6차 임원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10월 18일 주일부터 모든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도록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예배를 금지한 후 당국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없는 모든 교회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예배와 모임을 통제하고, 교회 수용 규모에 따라 30명 50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정한 것에 대해 이는 정부가 유독 한국교회를 탄압할 목적이 아니냐며 상대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모든 교회들이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교회가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한국교회의 입장을 당국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모였다.

임원회는 제10회 총회를 12월 10일(목) 오전 11시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3층 강당에서 갖기로 하고, 만약 코로나와 관련, 아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소와 날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직전 대표회장을 당원직 위임장으로 한

선거관리위원 선정을 정관에 따라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기밀실사위원회와 비선선임수호위원회 의장 보고를 받고 기독교대한교회(연합) 총회총회장 최영학 목사를 신임 회원 기관으로 받았으며, 최규수 사무총장의 연임을 가결했다.

제20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 개최

김글로리아·주성웅 선교사 선정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 언더우드기념 사업회는 지난 10월 12일(일) 연세대 루스체홀에서 제20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연세대학교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했다.

이런 행사는 1부 선교상 시상식, 2부 언더우드 기념강의로 진행됐으며 올해 수상자로 김글로리아 선교사와 주성웅 선교사가 선정됐다. 언더우드 기념상과 장서로는 박보경 교수(경희대학교)와 정문형 박사(연세대 연암학과)가 초청됐다.

서승환 총장은 기념사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서거일인 10월 12일에 시상식을 하게 돼 더욱 뜻깊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사랑을 초월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언더우드 선교상이 언더우드의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 받은 김글로리아, 주성웅 선교사의 선교를

위한 헌신과 노고에 격려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수상자 김글로리아 선교사는 2001년부터 동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 선교사로, 현지 언어로 개발한 교재를 활용해 문맹자를 교육하며 복음을 전하고, 문맹자 교사양성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힘쓰는 공로이다.

주성웅 선교사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회교를 개척하며 목회하고 해솔리신대학 교수로 현지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있다. 또한 선교자인 바림이 현지 문교부 인정 등급 A의 한인소망학교를 설립해 유자부터 초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정통총회 56차 정기총회

한난 중에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



양정실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정

통총회(총회장 양정실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9월에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다가 지난 10월 19일(일)에 제56차 정기총회를 정기노회 및

목수양신학을 겸하여 여

전도회관 루터사기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드린 1부 예배는 신인총무 임정대 목사 사모로 부총회장 이영훈 목사의 기도, 사회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양정실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양정실 목사는 마 28:16-20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약속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신 약속과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한다. 첫째, 능력을 받으라고 약속하셨다. 둘째, 관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 셋째, 함께 있으라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셨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지 않는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으로 우뚝을 당하여

도 붙어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 후 관례로 이어진 2부 정기총회에서는 양정실 목사(총회장)의 기도와 전대시 목사(사기)의 총대사로 이어 양정실 목사(총회장) 정족수가 모드로 개회를 선포했다. 회의목적이 최은희 목사를 임시 서기로 임명하여 회의비용을 기록하게 하였다. 전 회의록 보고는 유인물대로 반기로 하고, 사업보고, 재정보고, 각 노회보고, 임원보고는 유인물대로 반기로 결의했다.

임원선거에서는 총회장 양정실 목사를 비롯해 부총회장 이영훈 목사, 양성은 목사, 한세진 목사, 신인총무 임정대 목사, 부총무 이세준 목사, 협동총무 김동경 목사, 강대목 목사, 서기 전대시 목사, 부서기 민경구 목사, 회의목적이 최은희 목사, 부회의목적이 이영숙 목사, 회계 김경연 목사, 부회계 김병설 목사, 감사 강성호 목사, 이준대 목사가 유임되었다.



기감 감독회장에 이철 목사 당선

8,230표 중 과반수 넘는 4,604표 얻어

기독교감독회는 지난 10월 12일(일)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새로운 감독회장으로 이철 목사(김종영교회)를 선출했다.

이날 선거는 총 10,008명의 선거권자들 중 8,230명이 참여(82.23%)한 가운데 김영진 목사(이로 1번, 은연교회)가 1,138표(13.8%)를, 기로 2번 박인환 목사(이로 2번, 안산화정교회)가 2,238표(27.2%)를 얻은 가운데 이철 목사(기로 3번)가 과반수를 넘는 4,604표(56.9%)를 얻어 당선됐다.

이날에 당선된 이철 목사는 선관위에 의해



후보에서 탈락했었다는 발언에 대해 "가쳐분이 인용되면서 선거를 불과 5일 앞둔 지난 10월 7일(수) 후보자격을 극적으로 획득했다."

이철 목사는 당선인사를 통해 "제3회 총회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참여해 최선을 다해준 김영진 목사, 박인환 목사 두 분의 후보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일기 동안 감리회와의 마찰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감리회 안에서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듣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국장협, 2020장애인문화예술축제A+FESTIVAL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공연 성료

〈사)국제장애인문화예술협회(총연합회)는 지난 9월 26일(목) 경기 가평 자라산에서 2020 장애인문화예술축제A+Festival 일환으로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를 가졌다.

본 공연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협

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예술협회(이사장 최광열)가 주관하는 행사다.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양자와 국가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국제장애인문화예술협회 소속 발달 장애인학생과 강사진으로 구성된 나눔행복 오케스트라와 장애인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전문공연팀 '문화향락스M', 장애인 전문 국악인 민요제대 기조를 이루어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하고, 발달장애인학생들과 비장애인이 전문예술인이 함께하는 관악앙상블의 화려하고 풍성한 연주로 무대를 가득 채웠다.

인력(Intact·비대면) 방식인 무관중으로 진행된 2020장애인문화예술축제 모든 공연은 10월 18일(일) 오후 7시, KBS LIFE 채널에서 방영되었다.

여론 조사 72.8% 여성 '낙태 반대'

바른인권여성연합, 태아 살인 조장 낙태 관련 개정안 철폐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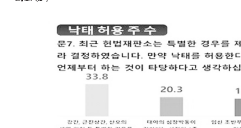
작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판결로 올해 12월 31까지 보완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시회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65.3%의 낙태가 12주 이내에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1년 인공임신 중절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주까지 자유로운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의 전면화이다.

더구나 24주 태가는 조산한 경우에도 다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다. 형식적인 상담과 결정을 만들어 '장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단 하루만 자녀를 낙태할 권리를 주는 것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낙태허가를 할 발급해줘야 살인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 경악할 일은 이 법안이 청소년도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론조사 전문

기관 여론조사(공정위에 의뢰) 10월 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여성 1,214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의견을 조사했다.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



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여성들이 낙태의 전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언론을 보도하며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려는 정부와 일부 패나이를 단체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인지 알 수 있다.



이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론조사 전문

한기총 직무대행자에 김현성 변호사

임의로 구성되는 선관위는 효력 없음 공지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자에 김현성 변호사가 선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2. 결정(2020 가합 20483)에 따라 직무대행에 선임된 김현성 변호사는 지난 10월 8일(목) 당부의 발을 받고 '직무대행은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대표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바, 정관 제2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기총 전체를 대표하므로 이해관계인 즉 특정인 또는 특정 그룹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사가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직무대행은 원회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법령과 정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며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하여 그 과정과 결과가 특정인 또는 특정 그룹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직무대행은 비법정이나 비합법적인 행위를 삼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특히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 회원·대의원 등 이해관계인 여러

분에서는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중지를 모으는 등 대의를 위해 잠시 소이를 내려놓는 지혜를 발휘하여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직무대행이 부임하기 전 임의로 추진되는 선관위 구성을 비롯한 인사회계 관리행위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공정한 김 직무대행은 "이에 따른 모든 것은 향후 정관 등 관계규정을 검토한 후 관련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

장기기증 홍보지 '선한이웃' 9월호 표지 모델로 나서

팬소소와 이웃들을 위한 기타 연주로 제니를 함께 하며 이웃사랑 실천(예사랑) 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택)는 장기기증과 이웃의 소망 및 장기기증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잡지인 '선한이웃'에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가 표지 모델로 나섰다.

"하루하루 선물을 받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인 함춘호 씨는 지난 2009년 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홍보 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사후 장기기증과 뇌



사시 장기기증을 약속한 함 씨는 '나쁜 공연'에 참여한다는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쉽다'고

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때였다. 장기기증을 접하고는 바로 이거구나 싶었죠"라고 함 씨는 소감을 밝혔다. 장기기증을 약속한 후 한 해를 이따금씩 생애를 생각해하며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함 씨는 "장기 기증의 주안점이기도 한 도나테이션(기부) 장기기증인 유기자(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라며 "여러분을 기증 같이 존경합니다. 슬프고 힘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장기기증을 결정한 도나테이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라고 전했다.

한글날을 보내며 두 선교사들을 생각할
은 한자와 한글이라는 도구, 지식인과 평민
이라는 대상 등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달랐
지만 동 시대를 살며 같은 땅, 같은 선교지
에서 한 사람은 중국을 또한 선교사는 조선
이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옹호군원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수고는 오늘날까지 꺼지지 않
고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월례회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다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10월 20일(화) 주사랑교회(담임 강신홍 목사)에서 10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기인 목사(전양교회)의 찬양인도며 이어 서경호 목사(복원교회)의 사도로 시작되어 표현자 목사(사계교회)와 나 무교회)의 기도와 김남수 목사(빛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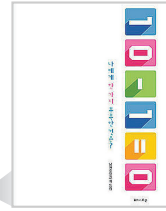
의 성경봉독 후에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신 30:15-20 말씀을 본문으로 "인간은 선함과 줄이는 동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동물은 배만 부르면 만사가 형통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복이 되는 것"이라며 "우상을 좇게 되면 가차 없이 장계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며, 코로나 시대에 더 가까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김기인 목사(전양교회)의 찬양인도, 오찬을 함께하고 인근 불교사찰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후 각지의 목양지로 향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10가지 신앙원리 10-1=0 나에게 한가지 부족한 것은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물입니다. 10에서 하나를 빼면 수학적으로는 9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10에서 하나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10까지 곁했는데 하나를 실수하면 모두가 무효입니다. 여러분에게 한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10-1=0입니다.

짐을 지으려면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연장과 도구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차근차근 쌓아올려야 보면 계획하고 구상했던 대로 길이 완성됩니다.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어느 한 과정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누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생사 회복, 영광 성사로 인해 회복해야 교차합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백함을 받은 제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때 10-1=0 지침서는 세상에 유포되지 않고 나를 나 되게, 나를 제자 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동역자를 섬기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에게 한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가 가까웠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령한 집을 지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미소 짓는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담임목사 063)625-0690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등용 목사



이두연 목사



박도섭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웅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관환 목사



온재천 목사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지도위원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총무

후원회 회장

후원회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운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용희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강희복(전 아산시), 김영애(아산시), 김항구(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진등용 목사

이두연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웅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도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선 목사

최문기 목사

박관환 목사

온재천 목사

손혁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추병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정병환 목사

김성권 목사

곽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주섭 목사

김의중 목사

김정환 목사

엄태일 목사

실무회장

박도섭 목사

사무총장

안홍규 목사

총무

정진학 목사

서기

최순식 목사

회계

곽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정수희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배성환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창섭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도환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기독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생화사진물(선택형)



▲45인승 버스



▲최고급 리무진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하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0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집

- 1 손상된 신체조직 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암)
- (*고려대학교 순음식 교수님 말씀으로 세계적 해법)

2)콜라보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한계보교)

3)타식폴린

- 1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세포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 4)호르몬,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배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일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서울신학대, 교회성장대학원 신설

황덕형 총장 “교회성장의 새로운 대안 마련”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교수)가 교회성장대학원을 신설한다는 기자회견을 지난 10월 14일(월) 열었다.

황덕형 총장은 “교회성장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개혁부터 재발성과 컨설팅, 새로운 형태의 코칭 등을 포괄하는 대학원을 시작해 한국교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체계적·창의적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치유이 다른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차별화하고 고도화된 전략과 전문성을 갖고 교회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또 “교회성장대학원은 이 시대에 교회개혁부터 성장과 경신, 컨설팅과 재발성과까지 한 번에 배우고 현장목회 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포기할 수 없는 교회개혁과 부흥을 위한 신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열정에 신학적인 이론과 함께 현장의 경험을 접목한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와 “교회성장대학원은 교회에 개혁하고 부흥시키기 위한 기본 이론 강요와 세미나, 목회개혁 수련, 성장 및 목회 컨설팅, 현장 탐방과 사후 조정까지 이뤄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주요 이론적 분야에 더해, 전통 목회부터 패러디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는 맞춤형 교회개혁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진은 교회성장학 전공 신학자, 목회 컨설팅 전문가, 개혁자 또는 목회자들을 개별적으로 코칭하는 교회 개혁 및 리더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MA는 2년, ThM는 1년 과정이며, 신대원 졸업자는 1년 만에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모집 대상자는 긴장한 교회성장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다. 전통 목회를 오랫동안 했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교회, 재발성과가 필요한 목회자, 교회개혁을 희망하는 신학생과 일반 신도, 교회 컨설팅과 리더십을 개발하고 싶은 목회자나 성도들이다. 새로운 교회성장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일반 성도들도 지원할 수 있다.

기독교대한성경교회 목회자를 양성하는 서울신대 교회성장대학원 측은 개혁 유망성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졸업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코칭과 멘토링 제공, 후원 네트워크 구축 등도 계획 중이다. 모집 기간은 11월 9일(월)부터 20일(금)까지이다.

한교연 봉사위, 꿈나무에 성금·쌀 등 전달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10월 8일(목) 오전 서울 동구구상동 소재 미온모자공동생활가정 ‘꿈나무’ (임장 박미자) 관사를 방문해 지원금 100만 원과 쌀 80kg 생부 등을 전달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

한교연 봉사위원회(위원장 김옥자 목사)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전달식은 주석 명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지원의 손길이 끊긴 박지 사자지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사무총장 최규수 목사의 사회로 드린 예배는 공선영 감도사(봉사위 서기)의 기도과 상임회장 김요종 목사의 설교, 봉사위원장 김옥자 목사의 격려사, 박미자 원장의 인사, 김원 기흥보살정의 광고, 김효종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김효종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뤄졌다. 하나님은 계획을 해보시고 사



를 세우고 만개 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전달하게 하셨다.”라며 “주와 살가리는 마음을 새겨 본다. 살가리는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다.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되새기자. 주님이 사랑을 받으셨다. 오신 것이 아닌 살가리 오신 것부터.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봉사위원장 김옥자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지만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살기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정성이 우리 사회에 더욱 따뜻하게 만들 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CTS, KT스카이라이프 채널 평가 A등급 선정

종교 분야 종합 1위, 전체 채널 순위 7위로 최상위

CTS가 기독교TV(회장 강경철, 이하 CTS)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방송 채널 평가 결과 부문 1위에 올랐다.

스카이라이프는 전체 157개 채널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방송에 대한 ‘채널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 CTS가 종교 분야에서 종합 1위, 전체 채널 순위 7위를 차지하며 최상위 ‘A’ 등급에 선정됐다.

스카이라이프는 A등급 (이론상) 30% △

콘텐츠 경쟁력(저체 재차 비율 등) 30% △유료방송 산업 발전 기여도(55%) △비용 효율성 10% △상용영향도 10% 등 7가지 항목을 평가해 상위부터 A-E 등급으로 분류해 채널 평가를 발표했다.

한편, 1986년 한국교회 공교단이 연합해 세워진 최초 영상선교방송으로 설립된 CTS는 올해 창사 25주년을 맞아 ‘다음세대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 방송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된 온라인 수업방식’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배우는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온라인 이채원)’이 방송되고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방송되고 있다.

그리고 3교3선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다음세대들이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강연하는 다음세대 마인드 ON(온라인 이채원)’이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방송된다. 또한 매일 오후 6시를 ‘CTS 다음세대 Zone’으로 편성해 다채로운 다음세대 프로그램을 방송을 통해 선보인다.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뷰티서비스지원

코로나19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독거노인 위해

국제뷰티구조개별 NGO (세월드뷰티핸즈(WBH) 이사장 장영민, 회장 최 예스 신대원 교수는 지난 9월 20일 20일(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바깥구 관내 독거 어르신들의 외모관리를 위하여 추석맞이 뷰티서비스를 지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독거어르신들은 경제적인 빈곤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이 위축되면서 외모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뷰티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비스 장소와 사용도구의 철저한 소독과 함께 방역패스를 실시하였다. 어르신들끼리 대면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약제로 시간차를 두었으며, 거동이 힘들어서 거실에 오지 못하신 어르신은 집으로 방문하여 재가 서비스로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한 최 예스 회장은 “그동안 저희 학교 봉사동아리 학생들과 매일 1회 이상 어르신



들을 위한 뷰티서비스를 진행해왔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동거인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외모관리와 관리함으로써 우울감이나도 감소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저희 학교도 뷰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족세드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드전도 아카데미 원장

새벽전도를 가능케 하시는 주님!

저는 교인 수가 적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드전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본 영성기도 전도법이라 1-25주만 완성되리라곤 간단하게 생각하였는데 12주 과정으로 3달 동안 진행됐다 하여 부담감이 있었으나 실제 전도현장을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해 보자! 그리고 교육기간 12주 동안 일과 겹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12주 전도 훈련에 충실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교회에서 수요일에 후 할아이를 하면서 바블라! 저를 써 거면서 영성기도를 30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가족세드전도 훈련을 받고 돌아오면 전도훈련을 온전히 이해하고 집에 와서도 저 혼자서 저의 교회 주원으로 이 능력전도를 꼭 하고 또 그 다음 주 수요일에 가서 능력전도를 훈련 받고 또 집에 와서 혼자서 교회 주변을 전도하였습니다. 일주일도 두 번을 전도하는 셈이지요.

그런데 집안 행사로 저 혼자서 하는 전도를 못할 주기에 있었습니다. 고민하는 중에 이 능력전도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새벽기도회 끝나고 새벽전도를 할 수 있다는 훈련 중의 말씀대로 새벽에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날도 아스름한 새벽에 전도를 하는 저는 어떤 내가 장성한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면 어떤가? 라는 생각과 ‘하나님 전도훈련 12주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라는 두 생각 사이에 갈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

에게 전도지를 건네는 순간 그 사람이 영원하게 전도지를 받으리 저도 영원하게 전도지를 내밀면서 자연스런 새 새벽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제 새벽에 전도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새벽기도회를 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바로 이어서 새벽에 전도하니 훨씬 좋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전도를 잘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 사는 친정동생이 아프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밤에 저는 아픈 동생을 지켜보면서 다음 날 동생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기도회를 하고 그 교회 주보를 가지고 동생 집 교회 근처에서 새벽전도를 하였습니다. 노력전도는 그곳 의정부에서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너는 일어나 내가 야 하고 사랑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아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외쳐라, 전하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 가족세드전도, 능력전도를 통하여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동행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레교회 박미리 권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드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컵속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로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주세요.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살균 5.편도 보호 6.갑기예방 7.혀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기침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입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장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열심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 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 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 교회의 회개 편지

이천년전... 그소리...

이천년전

갈보리산 못박는소리
구원자로 오신예수 죽임당했네
뒤따르던 열두제자 몇명없었고
이방사람 백부장이 주님인정해

이천년전

아픈소리 못박는소리
육체임고 오신예수 하나님아들
믿음으로 따라갔던 사도요한은
끝날까지 사랑으로 복음전했네

이천년전

그소리가 내게들리네
성령께서 감동주시 날깨닫게해
못 박아야 할사람은 바로내자신
죽어야만 산다는것 알게하시네

이천년전

그곳에는 내무덤있네
예수께서 죽으실때 나도죽었지
이사를들 뜨거웁게 다시새기며
거듭난자 용기있게 새출발하네

수요예배 말씀이
깊은복상으로
이야지다



중국 목회자 지지 서명서, 한국주재 중 대사관에 발송

한국VOM, 중국 목회자 지지 서명서, 한국주재 중 대사관에 발송

한국VOM(Voice of the Martyrs Korea)은 중국 목회자들을 지지하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독교인 440명의 서명이 담긴 28쪽 분량의 목록을 서울 주재 중국 대사관에 발송했다. 이 서명 목록에는 중국인 목회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한국 교회 기독교인과 전 세계 기독교인 4400명의 서명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VOM은 온라인 웹사이트(www.chinadecorations.com)를 개설하여 기독교인들의 서명을 받았다. 한국VOM은 중국어 원문 신앙 선언서는 물론, 한국어와 영어와 러시아어로 번역된 신앙 선언서도 이 사이트에 함께 올렸다.

이 웹사이트에서 한국 VOM은 신앙 선언서에 원래 서명한 43명의 중국인 목회자들과 연대하여 함께 서명해달라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권고하고 지난 1년간 서명을 받았다.

중국 목회자들이 발표한 신앙 선언서에는 아래 4가지 선언이 담겨 있다.

첫째, 중국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시라는 진리를 무조건 믿는다. 성경은 모든 의(義)와 도덕과 구원의 원천이며 최종 권위이다.

둘째, 중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삼자기의 길로 걸기를 열망하며 그 길로 간기로 결단했다. 중국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고 순교한 앞선 세

대 성도들 가까이 본받고자 하는 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셋째, 중국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중국 당국자들에게 가까이 복종할 것이고, 사회와 인간의 행위를 다스리는 정부의 권위를 존중할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께 속한 중국의 참된 모든 교회가 정교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임을 선포해야 한다.

선언서 전문이 이 보도자료에 첨부되어 있다. 한국 VOM은 중국 목회자들이 발표한 신앙 선언서와 이를 지지하는 기독교인 4400명의 서명 목록 외에도 중국어로 작성된 권고문도 발송했다.

사설

신앙의 자유도 상당부분 박탈

중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후학(厚學)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알골이 무덤과 속이 사귀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대통령은 얼마 전 행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칭호 대신에 우리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중국은 후학의 나라가 분명하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매우 궁금하다.

왜 중국이 후학의 나라일까? 알골이 두껍기가 한량 없고 뻔뻔하기가 말로 표현 못할 지경이다. 지난 9월 8일 중국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자국민 4명에게 혼인을 수여했다. 코로나19의 전장에서 큰 공헌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수여식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빨리 코로나 전염병을 극복했다며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중국에서 지역감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인데 참 뻔뻔하기 그지없다. 오히려 미국이 진원지일 수 있다고 생떼를 부리기도 했다. 말이 안 나온다. 중국이 진원지라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일인데도 그렇게 말한다. 거짓말과 뻔뻔함이 천지를 진동한다. 조국 사태 추미에 사건은 아예 듣지도 다 아는 일인데도 그들은 세월따라 이리저리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인데 참 뻔뻔하기 그지없다. 오히려 미국이 진원지일 수 있다고 생떼를 부리기도 했다. 말이 안 나온다. 중국이 진원지라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일인데도 그렇게 말한다. 거짓말과 뻔뻔함이 천지를 진동한다. 조국 사태 추미에 사건은 아예 듣지도 다 아는 일인데도 그들은 세월따라 이리저리

여성계 원로들의 낙태죄 전면 폐지 웬말

최근 소위 '낙태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여성계 원로 100여이 넘는 사람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본다.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 존중보다는 여성의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말한다. 그렇다면 낙태를 미용대로 한 여성들은 과연 행복할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태아는 죽고, 여성은 다친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후, 최고의 피해자는 오히려 여성이 된다.

법은 우리 사회의 하부구조인데, 법이 모든 것을 정하고 있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결정권까지 갖는다면, 이는 하위 개념인 법이 상위 개념인 양심과 자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능가하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법이 왜 필요한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법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나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법이 이런 법체계가 왜 필요한가? 살인을 방지하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호하는 법은 팔로고 병든 사회를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죄'에 대한 개정론을 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에 제한해야 하고, 낙태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의료를 처벌하지 않는 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

생명의 시작은 인위적으로 기기를 정해놓고 안 될 것이 아니라 수정(受精)과 함께 이미 생명으로 인정되는 인공적인 한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들도 수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태어났는데 시작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신한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악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태아를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신한 행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고문: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배성환

●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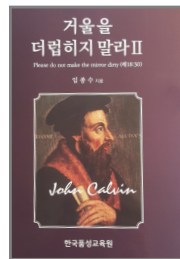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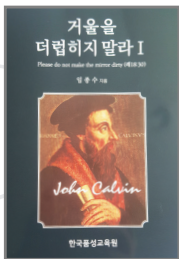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영로 22 다정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번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든 어떤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개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 제2권 대인관계 부분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러쳐야 할 세력들 즉 집과 곳,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적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권이 출판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 강행은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 파괴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 위해 제정 즉각 중단 촉구



인·터·뷰

정상은 목사

한국대학기독교총장포럼 회장·전 성결대 총장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한국대학 전, 현직 기독교 총장들은 10월 1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 훼손은 물론 평등 구현과 인권보장에 역행하고, 건강한 가치관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라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차급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교회 교단장(총회장)들과 한국대학 기독교총장들이 연대하여 함께 공동성명서를 낸 일은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 그만큼 차급법 제정이 가져올 한국 기독교에 대한 폐해의 위중성과 심각성이 어떠한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장 통합, 합동, 기장, 성결교단을 비롯한 한국교회 30개 주요교단 교단장들로 구성된 한국교회총연합회(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와 전, 현직 대학총장들로 구성된 한국대학기독교총장포럼(회장 정상은) 그리고 한국복음주의 신학대학협의회(회장 김근수) 3개 기관 연합으로 한 목소리로 공동성명서를 내고 신앙의 자유와 진정한 평등과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차급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 법 제정을 계속 시도한다면

한국교회와 기독교 대학을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하여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차급법 반대 공동성명서 선언을 처음부터 주도한 한국대학기독교총장포럼 정상은(전 성결대 총장) 회장은 "우리 사회에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기존의 20개에 달하는 이 모든 법률을 포괄하는 하나의 법을 따로 제정해 다양한 개인의 삶을 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국가주나 전채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 분리된 시각에서 동성애자의 이름을 이해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아야 하고 이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도전에 반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완전적으로 차단하는 차급법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특히 차급법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교회와 지금에서는 마치 강도의 작은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결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종래에는 그 여파로 인해 독 전제가 붕괴되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수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고 지적하고 있다. 당사 법 시행과 함께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바로 가르치거나 전하는 일은 과거와 달리 강제적 제재와 처벌을 받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닌가 반문한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각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과 신학적 입장을 낚아서 보수 진보 구분없이 하나가 되어 복음과 성경적 가르침이 더 이상 훼손받지 않도록 협력하여 사수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는 여·아를 떠나서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의 신앙적 결단과 책임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한국교회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대학총장들이 결속하여 공동으로 선언하는 이번 10.13.공동성명서가 단지는 긴밀한 협력과 충언을 제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한국교회 전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한국대학기독교총장포럼(한국총장포럼)은 2014년부터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로부터 받는 불신의 악기를 타개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며, 기독교 본래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 확장과 사명의 실현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정기포럼을 실시하고, 이 자리 대학총장에

게 글을 맡다' 책 발간(2019년) 그리고 2019년 6월 8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장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허락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내었고, 지난 8월 18일에는 한국복음주의 신학대학협의회와 공동으로 11개 교계신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내었다. 회원 대학총장들은 30여 명에 달한다.

대학총장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정상은 박사(전 성결대 총장)는 현재 한국신학대학(이장 조용목 목사의 회장으로 2019년 10월 제10차 WCC부산 총회가 개최될 때 학술대회와 책 발간(한국교회 미래는 있는가) 그리고 세계적인 초창강화(독일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를 은혜와인리교회인양 성전에서 열어 WCC의 반성경적인 실패를 낚는 이 규명, 비판하였고, 로마 가톨릭 프란체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때에도 천주교의 반성경적인 교리를 개신교와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술 대회를 나사렛대학교에서 개최하고 이후 천주교는 개신교와 무엇이 다른가 책을 출간한 복음주의의 신학자로서 한국교회를 학문적으로 보호하고 복음의 본질과 성경적 가르침을 사수하고 전하는 일에도 누구보다도 사명감을 갖고 복음주의 진영 최전선에서 가장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

공 동 성 명 서

우리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한국대학 전, 현직 기독교 총장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 훼손은 물론 평등 구현과 인권보장에 역행하고 건강한 가치관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평화, 사랑, 평등, 인권, 차별금지법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내포한 미명(美名)과 언어 상의 조작으로 그 속에 반인륜적인 내용과 사상을 담아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들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따듯하게 품으면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대신에 동성애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반인륜적인 시도도 있었다. 이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름답게 포장된 명칭과 달리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 이 법의 내면에 숨어있는 불평등, 차별, 비윤리, 억압의 내용은 인류의 보편적 삶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사회를 분열과 타락으로 점철(點綴)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흔히 신앙의 자유를 일컫는 '종교의 자유' 보장이 아니라 (반) 신앙을 강요하며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법이다. 이 법은 차별 해소를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제정 취지의 표면적 선전과 달리,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법의 통제 속에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이반화하며,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난민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령차별금지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런데도, 마치 이 모든 법률을 포괄하려는 듯이 한 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개인의 삶을 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국가주나 전채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여 통제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앞서 만들어진 법을 잘 준수하면서 건강한 사회 윤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노력 대신에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견인해야 할 사람들을 사소한 법을 제정해서 구속하려는 것은 보편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박탈하는 일이다. 주어진 권리와 권한으로 국민을 가르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시도는 자유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스럽고, 오만한 일이다. 윤리적 회복으로 사회의 건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독소 조항을 삽입한 끝없는 법의 제정으로 통제와 복종을 강제하겠다는 편견 가득한 시도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한국대학 전, 현직 기독교 총장들은 신앙의 자유 및 진정한 평등과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이 법 제정을 계속 시도한다면, 한국교회와 기독교 대학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0월 13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외 회원 교단장 일동

한국대학기독교총장포럼 회장 정상은 외 회원 총장 일동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 회장 김근수 외 회원 총장 일동

[교단총회장 김태영(회장)] 명단

소강석(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장종현(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윤보환(기독교대한감리회) 외 24개 교단

[대학총장 명단]

강우정(한국성서대학교) 고세진(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김경수(나사렛대학교) 김근수(칼빈대학교) 김선배(한국침례신학대학교) 김성수(고신대학교) 김영권(대전신학대학교) 김영민(전주비전대학교) 김용관(부산장신대학교) 김윤희(해럴드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재연(기원대학교) 권영근(영남신학대학교) 노재경(서울신학대학교) 오영기(동원대학교) 목창균(서울신학대학교) 문성모(서울장신대학교) 박노준(안양대학교) 신민규(나사렛대) 안민(고신대학교) 안주환(서울장신대학교) 이길형(KC대학교) 이상인(성결대학교) 이은규(인성대학교) 이상숙(해럴드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이재서(총신대학교) 임승인(나사렛대학교) 임성택(KC대학교) 임철수(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오영교(한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근모(명지대학교) 정규남(영남대학교) 정성윤(성결대학교) 정인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정일영(총신대학교) 정효주(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창균(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홍호(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조성현(가천대학교) 주대준(선신대학교) 최재태(대진대학교) 최문지(협성대학교) 최성규(성산대학교) 최홍식(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최홍진(호남신학대학교) 한영환(서울한영대학교) 하원규(부산장신대학교) 한우광(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황덕형(서울신학대학교) (가나다순 *전직총장)

독양신문은

중고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mok2677@kakao.com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